

◀ 한국원자력학회 '96 춘계학술발표회 ▶

원자력과 여성의 역할

최 승 학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홍보위원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은 우리 여성들이 원자력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과 안전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결성된 여성 원자력 유관 단체이다.

이렇게 우리 여성들까지 원자력 바로 알기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은, 원자력이 우리 생활속에서 이미 알게 모르게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조차 외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처럼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원자력이라는 고도의 과학 기술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전력의 안정적 수급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

의 질을 높여주고 있음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핵 단체나 환경 단체에서는 원자력을 무조건 반대하도록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다.

지구 환경 문제에도 화석 에너지의 대량 사용으로 대기 온도 상승이나 산성비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한정되어 있는 화석 에너지로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도 현실성있는 대안도 없이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소모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여성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한 판단과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자력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을 만든 것이다.

사회적인 강한 이슈로 등장한 원자력을 여성들이 앞장서서 공부하면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1년에 걸친 결성 준비 끝에 지난 95년 12월 14일 서울 교육문화센터에서 전국 15개 시·도 협의회 2,00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 대회를 개최하였다.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은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 우리는 우리 가족, 친지는 물론 이웃을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구호가 아닌 실천적 노력으로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한정된 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환경 친화적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대체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핵무기 개발과 핵실험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역행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적극 반대한다.

• 우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건전한 비판자로서 뿐만 아니라 환경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 우리는 정부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것을 다짐하면서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은 서울 특별시에 사회 단체 등록을 마침으로써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 후 우리들은 우선 에너지 변천사를 공부하였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 생활 속에서 에너지는 이렇게 변화하였다고 배웠다.

- 농경 사회 → 나무와 숲
- 산업 혁명 시대 → 석탄
- 현대 문명 사회 → 석유·가스
- 정보화 시대 → 원자력

에너지 변천사에 대한 학습은 다음 세대의 에너지가 원자력임을 깨우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강의도 듣고, 슬라이드도 보고, 30여년간의 우리나라 원자력 개발 역사도 들으면서 시설 현장도 둘러 보았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나라 원자력 과학자들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우리 나라 원자력을 이만큼 키워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그들의 노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은 우리 나라의 높은 과학 기술 수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명감도 갖게 되었다.

어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도 없는 우리 여성들이 대담하게도 원자력의 세계에 뛰어들 것 같은 감회도 있다.

그러나 교육이 거듭되면서 우리는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힘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는 이 시대에 원자력을 이해시키는 일에도 여성의 몫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자각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고 있다.

우리 회원들은 원자력에 대하여 좀 더 알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원자력발전소 견학에도 참가하고 있다. 회원들은 거의가 주부인데 가정을 떠나 연수나 견학에 참가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원자력발전소에 가서 내부의 첨단화된 시설, 구조종실, 터빈실, 폐기물 저장고를 둘러보고 많은 것을 느끼며, 강의도 듣고, 또한 회원들의 사례 발표도 듣는다.

50대의 한 회원은 이런 말을 했다. 요즘 '한국형 경수로'라는 말을 하길래 신문을 봐도 모르겠고, 사전에도 없어 대학 다니는 아들에게 물었더니 "어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하더라는 것이다. 그녀는 하도 기가 막혀서 야단도 못쳤다며 하소연을 했다. 그러면서도 '혹시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모르면 배우자' 하는 결심을 하

고 우리 모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박수를 보내주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우리 모임의 대구협의회는 가장 늦게 조직이 결성되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렇듯이 대구협의회장의 남편되는 분도 부인이 사회 활동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분이다. 그런데 월일인지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활동에는 반대하지 않고 부인이 4월 한 달 동안 한국원자력연구소에 7번이나 회원을 인솔하여 연수에 참가한 것도 긍정적으로 협조하여 주고 있다.

아마도 그 분은 원자력 에너지가 차세대 에너지임을 터득하고 우리 모임의 뜻에 찬동하여 주는 것 같다. 이렇듯 우리 여성모임은 자신의 가족부터 원자력을 이해시키고 있다.

그 밖에 우리 여성모임 조직에서 주목할만한 지역으로는 충남협의회·경남협의회·부산협의회·광주협의회 등이 있는데 활동에 참여하려는 열의가 놀랄만치 높다.

원자력 홍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국민 의식의 바탕에 깔려 있는 불신이다. 우리들은 원자력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함께 홍보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과학 기술이나 학문적인 이론보다 실생활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부분에 역점을 두어 설명한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40%가 원자력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특히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암에 걸리면 원자력병원을 찾는다든 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개발된 무릎 관절염 치료용 방사성 물질이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97년까지 예약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아주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원자력의 응용 과정에서도 실생활에 유익한 면을 더욱 많이 연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안전성에 대하여 홍보할 때는 첫째, 인위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이나 오동작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interlock 기능을 갖고 있는 점을 인식시키고 둘째, 기계가 고장났을 경우, 자동적으로 안전이 확보되도록 fail-safe 하는 안전 기능이 확보되어 있어 여러 각도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 설명을 잊지 않는다.

우리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은 자체 연수 모임에서 외국에서의 예를 이렇게 설명한다.

• 스웨덴 : 80년 국민 투표로 원전 폐쇄를 결정했다가 전력난으로 결정을 번복하였다.

• 독일 : 태양열·풍력 등 대체 에너지 개발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 프랑스 : 원전 냉각수를 상수원에 흘려보내면서도 시민들에게 걱정없이 수도물을 마시게 한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나라와 외국과의 형편을 비교하면서 홍보하고 있다.

10년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우리가 홍보하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의 위험성은 서방 국가에서는 거의 없다고 하면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처럼 엄청난 피해를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크나큰 비극이다. 돌이켜보면 체르노빌 비극의 교훈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자세에 있어서 안전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들은 이를 명심하여야 될 것이다.

짧은 기간의 홍보 경험이었으나 우리는 최상의 가치를 사람에게 두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진지하게 필요성을 전할 때 비로소 신뢰감이 더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간부들의 일본 원자력 시설 시찰이 95년 11월 30일에서 12월 5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주선으로 추진되었다.

일본의 원자력 시설을 사찰하면서 느낀 것은, 일본은 원폭 피해국임에도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판단으로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원자력 선진국으로서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발전소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여 주었다. 그들은 원자력 온배수로 기르고 있는 뱀장어와 새우도 꺼내어 보여주면서 자랑스러워 했다. 그 곳은 지역

이기주의나 분쟁이 없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우리의 눈에 비쳐졌다.

우리는 96년 3월 23일 환경법학회가 국립의료원에서 개최한 「원자력과 온배수」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다.

환경법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개최된 세미나인데 원자력과 온배수에 대한 진지한 토의 보다는 원자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어느 교수는 원자력은 원자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공연히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지 원자력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 안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는가 하며 화를 내면서 원자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족은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억지까지 부렸다. 그러면서 그는 태양열은 왜 개발하지 않느냐면서 전기도 우리가 절약해서 쓰면 되니까 국민 캠페인을 벌여 에너지 절약 운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교수는 영광 5·6호기 건설을 절대 반대하여야 한다면서 영광 주민들이 자기에 찾아와서 말하기를 원자력발전소가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 한강 곁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폐기물 저장 시설도 안전하다면 청와대 곁에 저장하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소위 우리 나라 환경법학회 세미나란 곳에서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라면 일반인들에게 원자력을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회원들이 고리 원자력본부를 방문, 원자력전시관을 비롯하여 발전소 주요시설을 견학하고 있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가를 실감하였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도 해봤다.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타협할 수 있는 길은 우선적으로 원자력발전소나 폐기물 저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홍보 이외에 그들이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마음의 갈등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받아서 풍요로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그들에게 진실되게 반영되었을 때 비로소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는 타협의 대화는 가능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얼마간의 경제적인 보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 아니라, 용단을 내리기 어려운 그들의 심정적인 갈등마저도 이해하면서 지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입지가 어쩌면 숙명적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서로가 노력하면서 그들 스스로의 결단을 기다려야 한다.

선진국처럼 우리 나라도 원자력발

전소가 있는 그 고장이 진정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자리잡고, 그 지역이 관광 명소로 탈바꿈되어 그 곳에서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경제적인 진정한 보상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은 지난해 10월부터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무실은 서울시 마포구 도화2동 356번지 정우빌딩 304호이다. 4명의 상근 직원이 있으며 전국 15개 시·도 협의회를 관장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자생적인 여성 단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있다.

회비는 • 일반회비: 월정액, • 운영위원회비: 월정액, • 특별회비: 찬조금, • 단체회비: 연회비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여성모임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여 모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성공적인 궤도에 들어서기에는 재정적인 면에서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작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신영순 총재가 재정적인 부담을 해왔으나 국

책 사업인 원자력을 이해시키는 대국민 홍보 사업에 개인적인 지출로 이렇게 큰 조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다.

따라서 원자력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특별 회원이나 단체 회원으로 가입하여 우리 단체가 계속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앞으로의 우리 모임의 중요한 사업 계획은 ① 조직 및 회원관리, ② 자체 홍보요원 양성, ③ 외국의 WIIN과의 국제적인 교류이다.

먼저 조직 및 회원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회원 가입은 전국 15개 시·도 협의회에서 원자력 연수 및 견학을 마친 뒤 자발적으로 한다. 회원수는 4월 30일 현재 3,603명이 되었다. 우리는 효율적인 회원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체 홍보 요원 양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회원 중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춘 회원을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계획이다. 그들을 자체 홍보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요원화하여 원자력 바로 알리기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

국제 교류에서는 원자력 선진국과 국제교류를 통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원자력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겠다. 유럽 원자력 선진국 여성들은 원자력 여성기구인 WIIN(Women Interested in Nuclear)을 조직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여성들이 역시 WIIN을 조직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선 일본의 WIIN과 교류를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세계의 WIIN들과 공동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 방문,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국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은 국내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인류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정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본부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이나 요구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사적인 문제를 함께 공부하고 있다.

우리 회원들은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에 민감하다. 예를 들어 한국형 경수로·KEDO·NPT·IAEA와 같은 것을 알리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원자력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더욱 알차게 기획하고 교육시켜서 회원들이 대국민 홍보를 막힘없이 훌륭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것이다.

특히 원자력이 우리 여성들에게는 다소 딱딱하고 생소하더라도 이것이 차세대 에너지임을 감안한다면 회원들은 어머니, 할머니로서의 모성에서 더욱 열심히 더욱 진지하게 참여하리라 확신한다.

이를 위해서 원자력 가족 여러분들과 원자력 유관 기관의 많은 협조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원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 항상 따뜻한 관심 속에서 손잡고 도와 주기를 부탁드린다.

우리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은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실시한 원자력 연수 교육과 연구 시설 견학을 통하여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다지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95년 11월 16일부터 시작하여 96년 5월말 현재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연인원 88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우리는 오늘 현재 3,603명의 회원으로 양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질적으로도 대국민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된 것은 오로지 그동안의 교육 성과라고 믿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의 연수를 희망하는 회원들의 성화는 대단하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접해 본 신비한 원자력의 세계와 최상급 수준의 국제회의실 시설은 우리 회원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오랫동안 연구 경험을 쌓은 박사들의 진지한 강의는 우리들을 열광케 하였으며, 특히 감격스러웠던 것은 우리 나라 원자력 수준이 세계적이며 원자력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였으며, 우리들은 참으로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곤 했다.

강물이 흐르듯 막힘없이 진행되는 원자력 강의에서 원자력은 신(神)이 우리에게 몰래 보내주신 축복의 에너지

이며 우리 후손들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라고 배웠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도 한국전력공사의 각 지역 원자력발전소 견학을 주선하여 주었고, 동시에 회원들의 사례 중심으로 활동 경험을 발표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었다.

그 동안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주선한 원자력발전소 견학과 각종 강습회는 5월말 현재까지 24회에 이르며 연인원 1,450명에 달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견학은 우리 여성모임 회원들에게 원자력을 현실감 있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우리 회원들이 원자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을 도와주신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박사님들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자력의 토착화를 위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각기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가운데 상호 신뢰를 쌓아올리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의 에너지로 원자력이 각광받을 수 있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의 에너지는 원자력이라고 오늘도 홍보하고 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보탬이 되어 원자력 입국의 원대한 꿈이 실현되고, 우리 여성모임이 원자력 문화의 꽃으로 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